

천안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계획 검토

임 재 영 · 이 중 윤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연구팀)

1. 세계박람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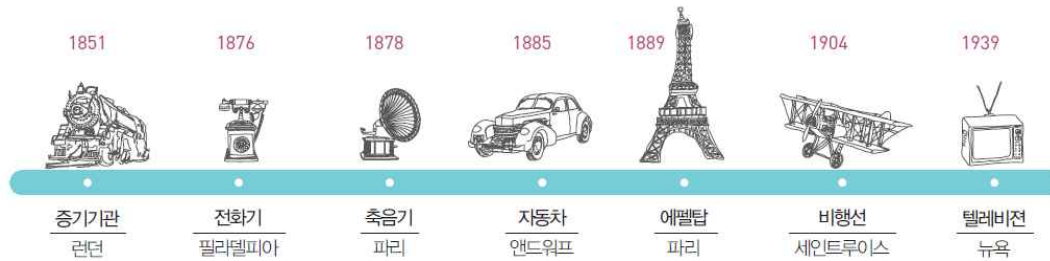
- 세계 박람회(World's Fair) 혹은 만국박람회는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최대의 공공 박람회로 개최지를 바꾸어 가며 개최됨
-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파리에 소재한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international exhibitions bureau)에서 주관
- 1931년 BIE의 설립 이후 엑스포는 ‘인정엑스포’와 ‘등록박람회’로 구분됨

1) 세계박람회 개최의 연혁과 의의

-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837년부터 1901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대는 영국 역사에서 산업 혁명으로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도달하여 대영 제국의 절정기로 간주됨
-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몇 가지 혁신적인 과학기술(① 방적 및 방직기, ② 증기기관, ③ 석탄을 이용한 철 제련 등)의 발전과 연결됨
- 이 시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력 증대와, 그리고 원료조달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식민지 확장정책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함
- 영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및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장으로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함
-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Hyde Park) 내에 지어진 수정궁에서 첫 세계박람회¹⁾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제박람회들이 개최됨
- 세계박람회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장으로서, 초창기 개최된 주요 세계박람회별로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음

1) 세계박람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지만, 근대적 개념의 세계박람회 역사는 1851년 런던세계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통설로 하고 있음(<https://ko.wikipedia.org>).

» 세계박람회 주요 유산



- 『2012 여수 세계박람회공식보고서』에서 인용

(그림 1) 주요 과학기술 발전과 세계박람회

- 결론적으로 초창기의 세계박람회는 산업혁명 선발주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① 혁신적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② 발전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 등의 과시목적이 주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주로 집권세력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국민의 자긍심 제고를 통한 국가 내부적 결속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시장확대를 의도하고 자국의 번영을 홍보 및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박람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박람회는 ‘성과과시를 목적으로 한 장(場)’에서, 점차 과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장(場)’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함
- 즉, 세계박람회에서 전시할 콘텐츠를 확보하고 거대행사의 유치를 통해 자국(또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기 시작함(이에 대해서는 뒤의 세계박람회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짐)
- 이러한 내용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공식보고서』에서 언급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이나 ‘나라를 키우는 무대, 엑스포’ 등의 설명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함
- 그리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유럽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개최가 이루어지던 세계박람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유치와 개최가 후발 산업국가들로 확대 되어가고 있음에서도 유추가 가능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보고서』 참조)

<표 1>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현황(2015년 기준)

| 개최연도 | 개최장소 | 개최연도 | 개최장소 |
|-------|-----------------|-------|------------|
| 1851년 | 영국 런던 | 1955년 | 이탈리아 토리노 |
| 1855년 | 프랑스 파리 | 1955년 | 스웨덴 헬싱보리 |
| 1862년 | 영국 런던 | 1956년 | 이스라엘 베이트다곤 |
| 1864년 | 프랑스 파리 | 1957년 | 독일 베를린 |
| 1873년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비인 | 1958년 | 벨기에 브뤼셀 |
| 1876년 | 미국 필라델피아 | 1961년 | 이탈리아 토리노 |
| 1878년 | 프랑스 파리 | 1962년 | 미국 시애틀 |
| 1880년 | 영국령 호주 멜버른 | 1965년 | 독일 뮌헨 |
| 1888년 | 스페인 바르셀로나 | 1967년 | 캐나다 몬트리올 |
| 1889년 | 프랑스 파리 | 1968년 | 미국 샌안토니오 |
| 1893년 | 미국 시카고 | 1970년 | 일본 오사카 |
| 1897년 | 벨기에 브뤼셀 | 1971년 | 헝가리 부다페스트 |
| 1900년 | 프랑스 파리* | 1974년 | 미국 스포캔 |
| 1904년 | 미국 세인트루이스 | 1975년 | 일본 오키나와 |
| 1905년 | 벨기에 리에주 | 1981년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
| 1906년 | 이탈리아 밀라노 | 1982년 | 미국 녹스빌 |
| 1910년 | 벨기에 브뤼셀 | 1984년 | 미국 뉴올리언스 |
| 1913년 | 벨기에 켄트 | 1985년 | 일본 스쿠바 |
| 1915년 | 미국 샌프란시스코 | 1985년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
| 1929년 | 스페인 바르셀로나 | 1986년 | 캐나다 밴쿠버 |
| 1933년 | 미국 시카고 | 1988년 | 호주 브리즈번 |
| 1935년 | 벨기에 브뤼셀 | 1991년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
| 1936년 | 스웨덴 스톡홀름 | 1992년 | 이탈리아 체노바 |
| 1937년 | 프랑스 파리 | 1992년 | 스페인 세비아 |
| 1938년 | 핀란드 헬싱키 | 1993년 | 대한민국 대전** |
| 1939년 | 벨기에 리에주 | 1998년 | 포르투갈 리스본 |
| 1939년 | 미국 뉴욕 | 2000년 | 독일 하노버 |
| 1947년 | 프랑스 파리 | 2005년 | 일본 아이치 |
| 1949년 | 스웨덴 스톡홀름 | 2008년 | 스페인 사라고사 |
| 1949년 | 아이티 포트프랭스 | 2010년 | 중국 상하이 |
| 1949년 | 프랑스 리옹 | 2012년 | 대한민국 여주** |
| 1951년 | 프랑스 툴 | 2015년 | 이탈리아 밀라노 |
| 1953년 | 이스라엘 예루살렘 | 2017년 | 카자흐스탄 이스타나 |
| 1953년 | 이탈리아 로마 | 2020년 | UAE 두바이 |
| 1954년 | 이탈리아 나폴리 | | |

- * 대한제국 특사파견, ** 대한민국 내 개최

-  인정박람회  등록박람회

2) 세계박람회의 구분

- 세계박람회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다루는 ‘등록 박람회’와 그리고 보다 제한되고 분명한 주제를 가진 ‘인정 박람회’로 구분됨(각 유형별 박람회의 특성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음)
-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는 모두 BIE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계 박람회이나, 등록 박람회는 보통 6주에서 6개월까지로 개최기간이 길며, 5년 주기로 개최함
- 반면 인정 박람회는 개최 기간이 3주에서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고, 등록 박람회 주기 사이에 1회 열리게 되며, 개최장은 25ha(25만㎡) 이내로 제한
- 그리고 등록 박람회의 전시관은 참가국에서 부담해 설치하지만, 인정 박람회에서는 주최국이 건축해서 참가국에 무상 임대하는 것이 보통임

<표 2> 세계박람회의 구분

| 구분 | 등록박람회 (registered expositions) | 인정박람회 (recognized expositions) |
|---------|-----------------------------------|-----------------------------------|
| 주제 | 광범위 | 전문 주제 |
| 특기사항 | 참가국이 시설설치 및 전시 | 개최국 시설설치, 참가국 임대 |
| 개최시기 | 매 5년 | 등록박람회 사이 1회 |
| 개최기간 | 6주 ~ 6개월 | 3주 ~ 3개월 |
| 전시면적 제한 | 무 | 25ha(25만㎡) |

- 손애휘(2005), 『(가칭) 부산항만물류엑스포 유치 당위성 및 전략』,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인용.

-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의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인정박람회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등록박람회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대전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 모두 인정박람회임
- 참고로 앞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인정박람회가 등록박람회에 비해 개최회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등록박람회가 규모나 그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하는 경우, 등록박람회의 유치경쟁 역시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다양한 전문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의 등록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정의 전문주제를 다루는 인정박람회의 체계적인 준비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왜냐하면 등록박람회의 개최요건이 인정박람회의 그것들을 포괄하므로, 전문주제로 준비된

인정박람회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확대됨으로써 등록박람회로 연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등록박람회 ≧ 인정박람회”

- 특히 치열한 유치경쟁을 전제로 했을 때, 체계적인 인정박람회의 준비작업이 상황에 따라 등록박람회의 유치작업으로 확대적용 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임
- 참고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애초 등록박람회로 유치를 추진하다가,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밀려 탈락 후, 인정박람회 개최로 전략을 수정한 후 국가사업으로 건의·추진하여 유치에 성공함
- 이 외에도 참고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상기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음을 손애휘(2005)²⁾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참가와 개최와 성과

○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참가 및 개최

- 1893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첫 국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참가
-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참가,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등으로 참가 중단
- 1962년 미국 시애틀 세계박람회 이후 참가 재개
-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표 3>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개최 개요

| 구분 | 1993 대전 세계박람회 (인정박람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인정박람회) |
|-----------|---|---|
| 주제 | ‘새로운 도약에의 길’ | ‘살아 숨쉬는 바다, 숨쉬는 연안 :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
| 부제 |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 ‘연안의 개발과 보전, ‘새로운 자원 기술’, ‘창의적인 해양활동’ |
| 참가 | - 108개국, 33개 국제기구, 200여개 기업 - 국내외 1,450만 명이 관람 | - 105개국, 10개 국제기구, 국내 23개 지자체, 7개 기업 - 국내외 820만 3956명 관람 |
| 평가 | 과학기술, 경제, 문화, 환경, 지역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 성공적인 주제구현 - 여수와 국가경쟁력에 기여 - 안전엑스포/IT 엑스포 구현 |
| 투자비 | 1조 7,810억원 투자 - 회장건설 등: 4,000억원 - 전시관 건설: 3,000억원(민간) - 기반시설 확충: 2,000억원 - 고속도로 확장 등 주변여건조성: 7,000억원 등 | 약 2조 1000억원 투자 |
| 경제적 효과 | - 생산: 3조 643억원 - 소득: 1조 2,500억원 - 고용: 21만2,000명 | - 생산: 12조2,328억원(지역:3조3,990억원) - 부가가치: 5조 7,201억원 - 고용: 7만 8,833명 |

- * 모두 산업연구원(KIET)에서 용역과제 수행

2) 손애휘(2005), 『(가칭)부산항만·물류엑스포 유치당위성 및 전략』,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 <표 3>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개최개요를 정리한 것임
 - 두 박람회 모두 인정박람회로, 두 행사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다고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와 같은 거대행사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로 인한 주로 관련시설 조성을 위한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나, 세계박람회 참가자들의 소비지출 변화 등 으로부터 추계됨
 - 자료구득의 한계로 여기서 두 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투자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임
 - 특히 투자비를 기초로 해서 제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그러한데, 세계엑스포의 개최와 관련된 투자비 세부내역을 통해 경제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
- 표에 제시된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대전은 투자비 1조 7,810억원으로 인한 건설부문 수요변화로 인한 경제파급효과가, 여수의 경우에는 투자비 2조 1,000억원으로 인한 건설수요 변화 외에도 관람객소비지출 변화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창출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는 두 세계박람회의 준비과정에 작성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가능함
- ※ 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최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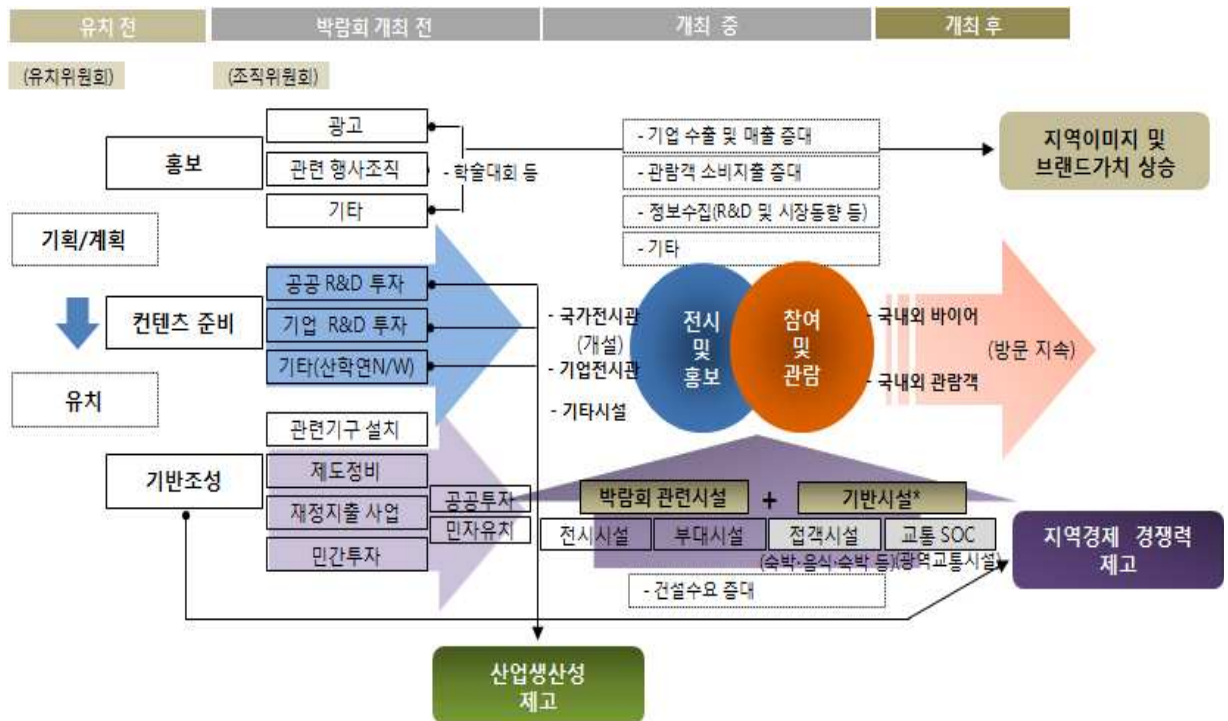
2.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의 효과

1) 세계박람회 유치의 기대효과

- 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개최의 목적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그로부터 파생된 국력신장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에서 점차 국가(또는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변화됨
-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문헌들을 통해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

정과 이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그림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유치 전, 그리고 유치 후의 박람회 개최 전, 중, 후를 구분하여 핵심적인 업무와 함께 이들로부터 기대되는 효과가 포함됨
- 결국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세계 각국에서 세계박람회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기반시설은 박람회 개최 전까지 마무리, 개최 이후에는 유지보수 요구

(그림 2)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과정과 기대효과의 개념도

- 참고로 이러한 세계엑스포 유치로 기대되는 효과들의 특성 등은 뒤의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음

〈표 4〉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의 효과와 특성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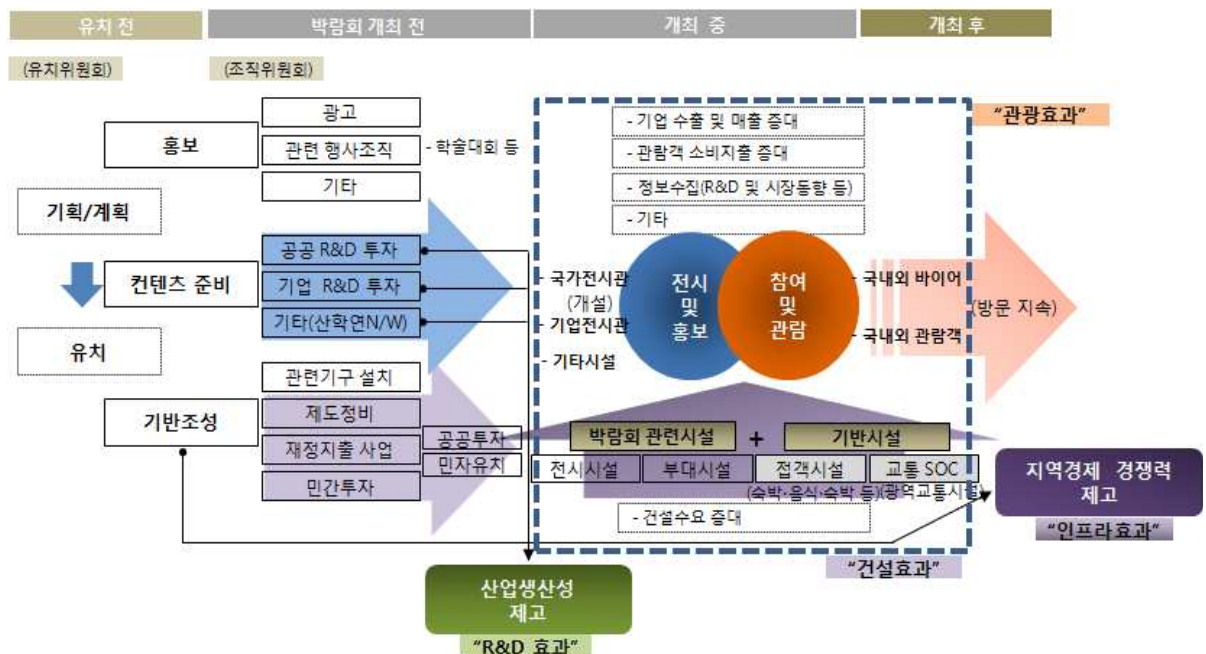
| 구분 | 발생근거 | 계량화 가능 | 경제과급 과정 | 분석 방법 | 효과 지속성 | 비고 |
|-------------------|--|--------|---|-------------|---------------|-------------------------|
| 건설 효과 | 박람회장 부지 및 시설 조성 박람회 관련 기반시설 조성 | ◎ | 건설수요 변화 ⇨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변화 | I/O 모형 등 | 단발 효과 | 박람회 종료 후에는 미발생* |
| 관광 효과 | 국내외 관람객 소비지출 | ◎ | 관광수요 변화 ⇨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변화 | | | 재방문 또는 신규방문 수요발생** |
| INFRA 효과 | 중앙 및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 (광역교통SOC 등의 공급 및 정비) | ○ | 기반시설 공급/정비 ⇨ 지역경제 생산성 ↑ ⇨ 생산/부가가치/고용 ↑ | 경제계정 및 경제모형 | 중장기 효과 | 중장기 관찰과 경제이론의 체계적 적용 요구 |
| R&D 효과 | 박람회 참여 기업 및 공공 R&D 투자 | ○ | R&D 투자 ⇨ 산업 및 지역경제 생산성 ↑ ⇨ 생산/부가가치/고용 ↑ | | | |
| 홍보 효과 | 박람회 유치와 개최과정의 홍보 지역민의 참여 | △ | 홍보활동 ⇨ 지역 이미지 ↑ ⇨ 지역민 자긍심 ↑ | 설문조사 등 | 중장기 효과 | 사회과학 또는 마케팅 영역 |
| | 국가/지역 및 기업의 박람회 참가 | △ | 박람회 출품 ⇨ 제품브랜드 가치 ↑ ⇨ 매출 및 수출 ↑ | | | |
| 기타 효과 | | | | | | |

- * 행사종료 후에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수요만으로 축소됨

**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통해 이미 명소화 된 관광지로서 박람회장을 찾는 수요는 계속 발생함

- 〈표 3〉에 제시된 대전 세계박람회의 경제효과는 주로 ‘건설효과’ 중심으로, 여수 세계박람회는 ‘건설효과’ 외에 ‘관광효과’가 추가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들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여수 등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보면,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에 포함된 효과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앞의 <표 3> 참조)
- 관련 연구들은 개최 전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작성된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요예측과 사업계획 및 효과분석을 포함하며, 이들은 주로 한국산업연구원(KIET)에 의해 용역과제로 수행됨



* 지역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는 제외

(그림 3) 세계박람회 유치효과* 구분

- 경제 이론적으로 세계박람회의 개최가 갖는 의미는 ‘관광효과’와 ‘건설효과’ 외에 ‘R&D효과’나 ‘INFRA 효과’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왜냐하면 관광효과와 건설효과가 수요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단발적 효과로 사업이나 행사 종료 후에는 지속되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임(물론 사후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관련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함)
 - 반면 R&D 효과나 INFRA 효과 등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세계박람회가 의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시도와 부합되기 때문임
 - 따라서 공공이나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R&D)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경제성장 경로(economic growth path)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모니터

링과 분석체계의 구축과 가동은 세계박람회 개최의 성패를 좌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 이 외에도 ‘R&D 효과’나 ‘INFRA 효과’ 등은 단발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효과임
-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이들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임
 - 이는 ‘관광효과’나 ‘건설효과’ 등이 수요중심의 투입산출(IO) 모형을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반면에, ‘R&D 효과’나 ‘INFRA 효과’ 등은 중장기적인 관찰의 결과(경제통계)와 함께 구체적인 경제이론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임

2)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과분석 결과

- 2012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앞의 <표 3>에서 사업비 약 2조 1,000억원과 그로부터 발생된 각종 파급효과만 간단하게 제시되었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천안의 세계박람회 유치와 준비를 위한 시사점 도출에는 큰 무리가 따름
 - 왜냐하면 사업비 2조 1,000억원의 세부 지출내역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이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는 후발지역들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가. 사업비 지출내역

- 한국산업연구원(2008), 『박람회 재정수지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연구』에 포함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사업비 내역과, 전라남도(내부자료)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된 사업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에 포함된 사업비 중 시설비의 세부내역은 앞의 (그림 2)와 (그림 3)에 포함된 ‘박람회 관련시설’에 해당함
 - 즉, 이 사업비에는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개별투자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통 SOC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공급과 정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이는 건설수요 변화로 인한 단발효과의 경우,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음을 가리킴)

<표 5>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사업비 지출계획 내역

| 구분 | | 금액 (단위: 억원) | 구성비 (단위: %) | 비고 |
|------------|-------------|----------------|----------------|--------------------|
| 총사업비(A+B) | | 21,000 | 100.0 | |
| 시설비 (A) | 소계 | 17,921 | 85.3 | |
| | 1) 부지매입비 | 2,256 | 10.7 | 박람회장/엑스포타운/회관환승주차장 |
| | 2) 시설공사비 | 14,629 | 69.7 | |
| | 가. 토목공사비 | 4,408 | 21.0 | - 박람회장 내부 |
| | 나. 건축공사비 | 10,179 | 48.5 | - 박람회장 외부 |
| | 다. 사후활용투자비 | 42 | 0.2 | · 육상교통터미널/항만시설 |
| | 3) 조사설계비 | 485 | 2.3 | · 종사자 주거단지/공공시설 |
| | 4) 감리비, 부대비 | 442 | 2.1 | · 숙박시설(콘도)/ 항만시설 등 |
| | 5) 예비비(민자) | 109 | 0.5 | |
| 운영비 (B) | 소계 | 3,079 | 14.7 | - |
| | 1) 인건비 | 359 | 1.7 | |
| | 2) 기관 운영비 | 450 | 2.1 | |
| | 3) 행사비 | 748 | 3.6 | |
| | 4) 회장관리비 | 600 | 2.9 | |
| | 5) 홍보비 | 400 | 1.9 | |
| | 6) 개도국 참가지원 | 379 | 1.8 | |
| | 7) 여수프로젝트 | 101 | 0.5 | |
| | 8) BIE 배당금 | 43 | 0.2 | |

- 자료: 한국산업연구원(2008), 『박람회 재정수지와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연구』

○ 건설부문의 수요변화와 직결된 시설비 투자와는 별개로, 특히 INFRA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SOC 사업은 다음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이러한 SOC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적인 경쟁력 상승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것임

<표 6> 2012 여수 세계엑스포 관련 SOC 사업*

| 구분 | 사업내용 | 비고 |
|---------|---|-------------------|
| 기존 추진사업 | - 전주~광양 고속도로 - 목포~광양 고속도로 - 국도 17호선 개제(여수구간/자동차전용) - 국도 77호 연륙도로 - 철도 전라선 개량 - 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 여수공항 확장 등 | 사업연장 및 조기완공 요구 |
| 신규 건의사업 | - 상기 전주~광양 고속도로 여수연장 - 상기 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연수연장 - 여수공항 활주로 추가연장 등 | 신규요청 |

* 본 SOC의 확충 외에도 다양한 중앙의 적극적 다양한 지원을 촉구하는 전라남도 의회 차원의 건의사항 포함됨

- 자료: 전라남도(내부자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이 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공식보고서』 참조

나. 경제적 효과

- 앞에서 제시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과로 제시된 경제효과(생산유발효과)³⁾와 관련 사업투자비 자료를 토대로 역추산된 결과는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음
 - 이 결과는 2010년과 2009년의 승수를 토대로 계산된 것임
-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제효과 중 약 33.0%에 해당하는 4조 322.2억원이 건설효과임
 - 참고로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운영비로 인한 경제효과는 전체의 4.7% 정도임

<표 7> 2012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효과 내역의 역추산 결과

| 수요변화 | | 이용자료 | | 생산증가효과 분석결과 | |
|------------------------|---------------|----------|--------|-------------|--------|
| | | 산업부문 | 생산유발계수 | (억원) | (비율) |
| 투 자 비 | 시설비: 17,921억원 | 건설** | 2.250 | 40,322.2억원 | 33.0% |
| | 운영비: 3,079억원* | 소비자서비스** | 1.852 | 5,702.3억원 | 4.7% |
| | | (소계) | | 46,024.5억원 | 37.6% |
| 관람객 소비지출 및 기타 수요 변화 | | 관광*** | 1.6526 | | |
| | | 기타 | | | |
| | | (소계) | | 76,303.5억원 | 62.4% |
| 경제효과(생산유발)합계 | | <표 3> 참조 | | 122,328억원 | 100.0% |

* 운영비의 경우 소비자서비스 평균 승수 적용

- 자료: ** 한국은행(2014), 『2010년 산업연관표』, ***이강욱(201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 앞서 <표 3>의 결과가 사실임을 전제할 때,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부터 발생된 경제효과의 62.4%는 관람객들의 소비지출과 기타의 수요변화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관람객 연인원 820만명의 소비지출 변화가 현재의 기준으로 추계되는 경제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가 천안의 세계박람회 유치준비에 시사하는 바는 고무적임

3)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효과 중 생산유발효과(생산액 변화)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포함한 값이며, 일반적으로 생산액은 중간원자재와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성됨

다. 평가

- 지금까지 앞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를 통해 다양한 효과가 발생됨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세계박람회를 통해 대전과 여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함
 - 이는 그동안 언급되어 온 효과들이 박람회 중간이나 사후의 조사분석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주로 세계박람회의 유치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사전평가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분석 및 예측결과인 것과 연결됨
 - 이에 따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박람회 개최의 성과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문제는 비단 두 차례의 세계박람회 개최만이 아니라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와 같은 거대행사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거대행사의 개최 전과 중간 그리고 후에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논의 중인 세계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세계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공급 및 정비’와 ‘공공 및 기업 단위에서의 R&D 및 관련투자’가 실재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역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발현시키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임
 - 계속 언급되었듯이 세계박람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이 결과를 통해 일부 존재하는 세계박람회와 같은 거대행사 유치에 반대하는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대전 세계박람회의 경우를 봤을 때, 천안시에서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시설의 건설과 보수유지를 위한 건설수요 변화와 관람객 소비지출로 인한 정(+)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세계박람회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조성하고 관련된 투자사업비의 규모는 설계를 포함한 관련 계획 수립 등의 과정들을 통해 결정됨
 - 다만 관람객 소비지출의 규모는 1993년 대전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도권에 연접하고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 천안시의 지리적 특성 상 기존의 두 세계박람회의 경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람객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불식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기존 두 세계박람회의 성과를 상회할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지역 내 상품에 대한 수요변화로 인한 단발적 효과 외에 앞서 언급된 ‘인프라 효과’ 나 ‘R&D 효과’와 기타 다양한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계측되어 포함된다면, 정(+)의 경제효과의 크기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됨
- 이 외에도 특히 아쉬운 사항은 세계박람회의 개최 중에 실재했던 참관객들의 구체적 특성과 이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의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앞서 <표 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박람회 종료 후에 명소화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 의한 관광소비지출이,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하는 형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함
-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행사의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관람객들의 관광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매우 필수적임

3. 2030 천안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 검토

1) 개최계획 개요

- 천안시(내부자료)에서 제안하고 있는 2030천안세계박람회(등록박람회)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음
- 핵심적인 사항은 미래 IT, 인류평화를 주제로 하는 등록박람회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외 등록박람회의 개최목표로 200개 국가, 50개 국제기구, 관람객 3,600만명을 설정하고 있는데, 목표치의 규모만으로도 천안의 세계박람회는 기존 국내에서 개최된 대전과 여수 세계박람회의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표 8> 천안 세계박람회(등록박람회) 제안내용

| |
|--|
| ○ (제 안 명) 천안세계평화박람회(등록박람회) 유치 |
| ○ (주 제) 미래 IT, 인류 평화 (가칭) |
| ○ (개최시기) 2030년 / 기간 6개월(5~10월) |
| ○ (장 소) 독립기념관 서곡(미개발지), 중국(기념관 시설) |
| ○ (부지면적) 약 70만평(서곡 30만평, 중국 40만평) |
| ○ (유치목표) 200개 국가, 50개 국제기구, 관람객 3,600만명 |
| ○ (기대효과) |
| - 국가위상 및 도시브랜드 상승, 지역 인프라 확충 |
| - 독립기념관 서쪽 계곡(잠정)에 “미래 IT, 인류 평화”를 모토로 하는 세계 각국의 전시관 조성을 통해 자유와 평화 상징인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
| -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및 당진항 크루즈선 접안시설 개통 |
| -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직선노선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
| - 천안온천지구 개발 및 백제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 활성화 |
| ○ (연도별 추진계획) |
| - 국가사업화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승인 : ‘17년 |
| - 국제박람회기구(BIE) 개최신청 : ‘21년 |
| ➡ BIE 규정에 의거 개최 예정일로부터 9년전 신청 |
| - 국제박람회기구(BIE) 천안유치활동 및 신청 : ‘18~’23년 |
| - 2030천안세계박람회 준비 및 개최 : ‘24~’30년 |
| ○ (사전 준비사항) |
| - 세계박람회 컨셉(주제)설정, 유치 당위성 및 정부 대응논리 확보를 위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 타당성 용역 |
| - 지역사회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치추진위 구성 |
| - 2030세계박람회(등록박람회) 천안유치를 위한 국가사업화 정부 승인 추진(충청남도) |

- 천안시(내부자료)

2)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와 비교시 천안개최의 타당성

- 현재 천안시 외에 부산에서도 2030 (등록)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이는 결국 부산이 준비 중인 세계박람회에 비해 경쟁력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등록박람회의 유치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임

가.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개요

○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2030엑스포 개요는 다음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음

<표 9> 부산의 2030엑스포 추진내용 및 경과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2030엑스포 개요</div><div><div>○ 기 간 : 2030. 5. 1. ~ 10. 31.(6개월)</div><div>○ 장 소 : 동부산, 서부산, 북항 일원 등 * 용역결과 검토 후 잠정안 마련</div><div>○ 규 모 : 150만㎡(150개국 참여, 관람객 2천만명 이상)</div><div>○ 파급효과 : 일자리창출 7만개, 직접투자 4.3조원, 간접효과 63조원 (↳ * 2015 밀라노엑스포 조직위 발표자료)</div></div><div>※ 정부정책화(2017) → BIE 유치신청(2021) → 유치결정(2023) → 개최(2030년)</div></div> |
| <div><div><input type="checkbox"/> 그 간의 주요경과</div><div><div>○ `14. 7.15 : 2030부산EXPO 유치 추진방안 수립(시장결재)</div><div>○ `14. 8. 1 : 엑스포추진팀(T/F) 구성 ▷3명, 경제정책과</div><div>○ `14.11.12 : 2030부산EXPO 유치 범시민준비위원회(구성)</div><div>○ `14.12. 4 : 제1회 국제컨퍼런스 개최</div><div>○ `15. 1. 1 : 2030엑스포추진단(T/F) 구성</div><div>○ `15. 3.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추진계획 및 로드맵 작성 - 2030엑스포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div></div></div> |

-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단 설명자료에서 발췌인용

* 3월 용역발주

○ 부산은 천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행보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천안은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면서 내용을 충실히 세계박람회 개최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함

-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부산 2030엑스포의 주제는 기존 박람회들의 주제와 선정기준, 전문가 설문 결과를 종합

- '문화의 다양성과 평화적 공존',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비전', '인류 진화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탐구'라는 큰 틀을 반영하는 정도로 모아지고 있음

- 즉, 부산 2030엑스포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은 마련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2000년대부터 부산 항만·물류엑스포의 유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결국 등록박람회로서 세계박람회 유치의 성패는 주제와 해당 주제를 구성하는 해당 콘텐츠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냐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계획의 준비과정에 달려 있음
- 이 계획에는 등록박람회로서 답아야할 주제에 상응하는 내용적 범위뿐만 아니라, 경쟁대상들에 비해 당해 지역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어야 할 당위성까지 포함되어야 함
- 참고로 부산의 경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임
- 등록박람회 개최의 타당성 확보는 우선 대외적으로 유치 결정과정에 관련된 BIE를 위시한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필수적임
- 이외에도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은 대내적으로 국내 개최지 선정과정은 물론, 유치 후 본격적인 개최준비과정에서 요구되는 대형국비사업의 실행가능성과도 연결된다.
- ※ 세계박람회 개최계획 내용과 타당성 평가결과 사이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채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천안개최의 타당성

- 2030년 등록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천안시 입장에서 부산의 등록박람회는 강력한 경쟁자로서 BIE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부터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천안과 부산 각각이 준비하는 등록박람회의 주제와 콘텐츠를 구성하는 세부내용들이 차별적이지 않은 상태라면, 천안세계박람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천안 세계박람회가 부산 세계박람회에 비해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내용들은 대부분 천안시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으로부터 발생함[(그림 4) 참조]
- 국토의 중앙부이며 전통적으로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강점확보
-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인적교류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표 국제공항과의 연계성 정도
- 과학기술 관련 R&D 활동 및 산업활동이 집중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음

- 천안시가 부산의 경우에 비해 갖는 상대적인 비교우위는 다음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음
- 표 안의 내용 외에 국토의 중앙, 교통의 중심지로서 천안의 강점은 한 마디로 세계박람회라는 거대행사의 개최에 요구되는 ‘비용의 최소화’와 개최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극대화’로 요약됨



(그림 4) 천안시의 공간적 위치

<표 9> 천안 세계박람회 개최가 부산의 경우에 비해 갖는 비교우위*

| 구분 | 비교우위 |
|----------------------|--|
| 박람회 유치 및 준비 측면 | ① BIE를 포함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접근성 및 동선에 유리 ② 주제관련 국내외 과학기술 종사자 접근성 및 동선에 유리 ③ 관련설비의 준비 및 설치에 비용과 시간 절감 ④ 콘텐츠 구성 위한 IT산업 및 문화예술 등이 수도권집중 등 |
| R&D효과 측면 | ① R&D 분야 집적 및 규모의 경제 촉진과 성과향유 유리 ② R&D 투자로 인한 과학기술 발전성과 공간적확산 유리 ③ 박람회 후 과학기술의 융합화 및 실용화에 상대적 유리 등 |
| INFRA 효과 측면 | ① 교통 SOC 공급 및 정비 성과의 효율성이 상대적 大 ② 기반시설 추가공급 또는 정비수요 상대적 小 |
| 건설효과 측면 | 대동소이 |
| 관광효과 측면 | 참관객(해외 바이어 및 일반 관람객 등)유치에 유리 |
| 기타효과 측면 | 브랜드가치 제고효과 향유대상 기업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 |

* 이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와 확인작업을 통해 다양화와 구체화 작업이 요구됨

- 참고로 천안시의 배후지역인 수도권과 충청권 개별 광역시도별로 R&D 관련 사업비(2008년부터 2012년 누적계) 현황은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음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R&D 활동의 80% 이상이 천안시에 인접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들에서 지출되고 있음

<표 10> 지역별 R&D사업비 현황(2008-2012 누적)

(단위: 십억원)

| 구분 | | 연구개발 주체별 | | | R&D 사업비 계 | 구성 비율 |
|-----|------|----------|--------|---------|--------------|----------|
| | | 연구기관 | 대학 | 기업 | | |
| 수도권 | 서울 | 5,519 | 9,025 | 27,326 | 41,870 | 18.9% |
| | 인천 | 802 | 605 | 7,217 | 8,624 | 3.9% |
| | 경기 | 4,123 | 2,805 | 86,528 | 93,455 | 42.2% |
| | (소계) | 10,444 | 12,436 | 121,070 | 143,950 | 65.0% |
| 강원 | | 234 | 724 | 553 | 1,511 | 0.7% |
| 충청권 | 충남 | 1,098 | 779 | 10,147 | 12,024 | 5.4% |
| | 대전 | 13,721 | 1,798 | 8,938 | 24,457 | 11.0% |
| | 충북 | 390 | 490 | 3,008 | 3,888 | 1.8% |
| | (소계) | 15,210 | 3,066 | 22,093 | 40,369 | 18.2% |
| 호남권 | | 921 | 2,313 | 4,839 | 8,073 | 3.6% |
| 영남권 | 부산 | 589 | 1,441 | 2,300 | 4,330 | 2.0% |
| | 대구 | 358 | 829 | 1,960 | 3,147 | 1.4% |
| | 울산 | 61 | 228 | 2,439 | 2,727 | 1.2% |
| | 경북 | 661 | 1,363 | 7,025 | 9,049 | 4.1% |
| | 경남 | 1,543 | 523 | 5,841 | 7,908 | 3.6% |
| | (소계) | 3,212 | 4,384 | 19,565 | 27,161 | 12.3% |
| 제주 | | 121 | 182 | 254 | 558 | 0.3% |
| 전국계 | | 30,141 | 23,105 | 168,375 | 221,622 | 100.0% |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

- 이 외에 천안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IT 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활동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11>과 같음
-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산업활동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83.9%,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75.7%,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68.1%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로 표에 제시된 충남의 IT산업 활동의 대부분(90% 이상)이 천안시와 그리고 연접한 아산시 두 시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임

<표 11> 지역별 IT 산업활동 현황(2010년 기준)*

| 구분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매출액 | |
|------|------|-------|--------|---------|--------|---------|--------|
| | | (개소) | (비율) | (명) | (비율) | (십억원) | (비율) |
| 수도권 | 서울 | 1,400 | 14.5% | 21,626 | 5.3% | 6,292 | 2.4% |
| | 인천 | 1,347 | 14.0% | 21,402 | 5.3% | 4,708 | 1.8% |
| | 경기 | 4,644 | 48.3% | 193,136 | 47.4% | 102,668 | 39.0% |
| | (소계) | 7,391 | 76.8% | 236,164 | 58.0% | 113,667 | 43.2% |
| 강원 | | 37 | 0.4% | 709 | 0.2% | 73 | 0.0% |
| 충청권 | 충남 | 240 | 2.5% | 37,810 | 9.3% | 49,228 | 18.7% |
| | 대전 | 198 | 2.1% | 6,186 | 1.5% | 1,548 | 0.6% |
| | 충북 | 247 | 2.6% | 28,358 | 7.0% | 14,914 | 5.7% |
| | (소계) | 685 | 7.1% | 72,354 | 17.8% | 65,690 | 24.9% |
| 호남권 | | 195 | 2.0% | 12,098 | 3.0% | 3,691 | 1.4% |
| 영남권 | 부산 | 203 | 2.1% | 7,116 | 1.7% | 1,878 | 0.7% |
| | 대구 | n.a. | - | n.a. | - | n.a. | - |
| | 울산 | 17 | 0.2% | 1,870 | 0.5% | 929 | 0.4% |
| | 경북 | 613 | 6.4% | 57,951 | 14.2% | 67,887 | 25.8% |
| | 경남 | 304 | 3.2% | 11,897 | 2.9% | 7,017 | 2.7% |
| | (소계) | 1,137 | 11.8% | 78,834 | 19.4% | 77,710 | 29.5% |
| 제주 | | 3 | 0.0% | 215 | 0.1% | 97 | 0.0% |
| 전국합계 | | 9,623 | 100.0% | 407,319 | 100.0% | 263,295 | 100.0% |

* 2010 기준 경제총조사 원자료

- 자료: 통계청(kosis.kr)

다. 제언

○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천안시의 비교우위는 주로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을 강조하는 타당성 논리에 입각한 것이며, 현실에서 형평성(equity)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예를 들면, 타당성 평가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논리만이 아닌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등의 측면이 같이 적용되고 있음

-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실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함

※ 특히 1993 대전세계박람회를 이유로 천안 2030세계박람회를 거부하는 목소리 경계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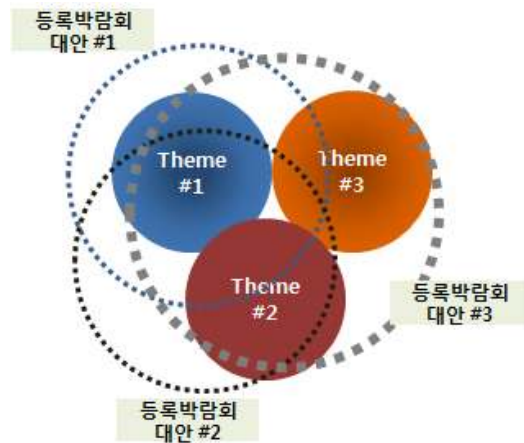
- 특히 앞서 언급된 지리적 이점의 강조만으로 준비하는 내용의 다양성과 질적인 측면이 저하되는 경우, 당연히 반감을 사게 될 것임

○ 따라서 천안시 입장에서 2030 등록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제와 콘텐츠를 구성하는 박람회의 내용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산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천안은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과정

- 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를 준비해야만 함
- 이 작업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고로 2030 천안 세계박람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로는 밑의 그림과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고려할 수 있음(단, 주제와 콘텐츠는 전문가들에 위임 필요)
- 여수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전문주제의 준비는 등록박람회 유치실패시, 대안으로서 인정박람회 유치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함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안 #1 | 특정주제 집중 | Theme #1 유일 주제 |
| 대안 #2 | 소수의 특정 주제 조합한 새로운 주제 개발 | 2~3가지 주제 중심 |
| 대안 #3 | Theme #1+ Theme #2+ Theme #3 | 복수주제(다수 주제) |

-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문주제의 지속적인 발굴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주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리고 박람회 주제와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 거대행사를 통한 기대효과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
-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 성과의 공유를 확인하는 과정 필요
- 본문의 (그림 2)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유치전과 후의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생략됨
-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행사례 벤치마킹 작업 필요하며, 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작업이 요구됨

- 특히 타당성 조사작업이 기본계획과 충분한 피드백을 가질 때, 천안의 세계박람회 유치과정은 물론 준비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 주제와 내용의 질적수준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갖는 계획안의 타당성확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 이 외에 유치가 확정된 경우,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대형사업들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됨

- 결론적으로 천안 2030세계엑스포는 등록엑스포로 기존 국내에서 개최된 두 차례 인정박람회 개최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기대됨
 - 단순히 박람회 규모와 기간 확대만으로 시설투자과 관람객 유치의 규모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건설효과'와 '관광효과'의 크기를 확대시키게 될 것임
 -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과 관람객 소비지출로 발생된 효과가 박람회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 작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는 점임
 - 이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후에 명소화된 관련시설과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개최 중 관람객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 작업들을 통해 모색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임

- 특히 산업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우리나라 IT산업활동의 중심지인 천안시 입장에서는 관련 산업활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작업과 함께 관련 R&D 역량이 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이러한 작업은 비단 천안시만이 아닌 충청남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수반을 요구하는 것이며,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함

- 다시 말해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인 IT산업이 세계박람회 유치와 개최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자동차 산업 등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작업이 절실히
 - 이를 통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당면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혁신적인 신개념 IT 및 융합산업이 세계만방에 과시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반시설 체계의 문제점 도출과 정비작업의 결과가 세계박람회 준비와 개최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